

# 대교협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한다

안석배 | 조선일보 기자

한국대학교협의회(이하 대교협)하면 일반 국민에게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기관으로 생각될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대학입시를 총괄 관리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대교협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이번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의 대교협의 역할은 상당히 미미했다고 기억된다. 간간히 대학 종합평가 결과가 보도했을 때 대교협의 이름이 알려진 정도였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의 대교협은 대학입시를 총괄하며 입학사정관제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도 대교협이 맡고 있다. 입학사정관과 관련된 예산만도 무려 236억 원에 이른다. 대교협이 이전에 전혀 해보지 못한 가장 큰 사업일 것이다. 그만큼 대교협에 대한 기대가 크고 역할이 막중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외부의 관심은 이렇게 높아지지만 정작 대교협이 이런 중요한 일들은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 지에 대해

일각에서는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대학 간의 협의회라는 성격에서 오는 우려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대학이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입시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과도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처럼 초·중·고를 포함한 거의 모든 교육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보기 드물다. 특히 대학입시가 조금만 변해도 연쇄적으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심지어 유치원 학생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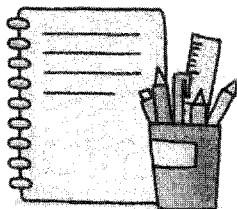
기존의 대학 입시에 대한 세간의 지적은 무시할 수 없다. 대부분 주요 명문대학들이 우수학생을 선점하려는 목적으로 입시를 진행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특목고 출신의 학생들이 많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입시를 만든다는 일반인들의 시각은 아직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대학의 책무성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 질 것이고 대학입시를 총괄하는 대교협이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학들이 학생선발에만 치중하고 선발이후 교육에는 등한시한다는 지적도 많이 있다. OECD의 고등학교 대상 PISA 학력자료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TIMSS 학력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학력은 세계 최상위권으로 나타난다. 이런 최상위권의 학생이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 과연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니다' 라고 답할 가능성이 높다. 객관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세계대학 평가 결과를 봐도 세계 50위권 내 대학에 포함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다.

지난 10월에 발표된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기관인 Quacquarelli Symonds와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The Times)가 공동으로 발표한 '2009년 세계대학평가'를 보면 서울대가 47위를 기록하고 카이스트 69위, 포스텍 134위, 연세대 151위, 고려대 211위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200개가 넘는 대학 중에서 단 5개의 대학만이 200위권 내외로 나타난 것이다.

이전 년도의 평가결과보다는 각 대학의 순위가 많이 상승했고, 해외 언론들도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대학들의 선전을 보도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학이 갈 길이 아직도 멀었다고 볼 수 있다. 아시아권 주요 대학들이 세계 상위에 포진한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 대학이 더욱 분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QS·더타임스 세계대학평가순위

2009	2008	대학명
1	1	하버드대(미)
2	3	캠브리지대(미)
3	2	예일대(미)
4	7	UCL(영)
5	6	임피리얼 칼리지(영)
5	4	옥스퍼드대(영)
7	8	시카고대(미)
8	12	프린스턴대(미)
9	9	MIT(미)
10	5	Caltech(미)
11	10	컬럼비아대(미)
12	11	펜실베이니아대(미)
13	13	존스홉킨스대(미)
14	13	듀크대(미)
15	15	코넬대(미)
16	17	스탠퍼드대(미)
17	16	호주국립대(호주)
18	20	맥길대(캐)
19	18	미시간대(미)
20	24	ETH 취리히(스위스)
20	23	에든버러대(영)
22	19	도쿄대(일)
23	22	킹스칼리지 런던(영)
24	26	홍콩대(홍)
25	25	교토대(일)
26	29	맨체스터대(영)
27	21	카네기멜런대(미)
28	28	파리고등사범학교(프)
29	41	토론토대(캐)
30	30	싱가포르국립대(싱)

2009	2008	대학명
31	27	브라운대(미)
32	33	노스웨스턴대(미)
32	30	UCLA(미)
34	32	브리스틀대(영)
35	39	홍콩과학기술대(홍)
36	34	파리공과대학 국립이과학교(프)
36	38	멜버른대(호)
36	37	시드니대(호)
39	36	UC 버클리(미)
40	34	브리티시컬럼비아대(캐)
41	43	퀸즐랜드대(호)
42	50	로잔공과대(스위스)
43	44	오사카대(일)
45	47	모내시대(호)
46	42	홍콩중문대(홍)
47	50	서울대(한)
47	45	뉴사우스웨일스대(호)
49	56	칭화대(중국)
49	53	암스테르담대(네덜란드)
51	48	코펜하겐대(덴마크)
52	40	뉴욕대(미)
52	50	베이징대(중국)
54	46	보스턴대(미)
55	78	뮌헨공과대(독)
55	61	도쿄공과대(일)
57	57	하이델베르크대(독)
58	69	워릭대(영)
59	74	앨버타대(캐)
60	64	레이덴대(네덜란드)
61	65	오클랜드대(뉴질랜드)
61	55	위스콘신 매디슨(미)
63	81	오르후스대(덴마크)

63	71	일리노이대(미)
65	72	루벤카톨릭대(벨기에)
66	75	버밍엄대(영)
67	66	런던정경대(영)
67	88	룬드대(스웨덴)
69	95	KAIST(한)
70	81	요크대(영)
70	67	위트레흐트대(네덜란드)
72	68	제네바대(스위스)
73	77	난항공대(싱)
73	60	워싱턴대 세인트루이스(미)
75	63	옵살라대(스웨덴)
76	58	UC 샌디에이고(미)
76	70	텍사스대 오스틴(미)
78	102	노스캐롤라이나대 채플힐(미)
79	73	글래스고대(영)
80	59	워싱턴대(미)
81	106	아들레이드호대(호)
82	76	세필드대(영)
83	78	델프트공대(네덜란드)
84	83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대(호)
85	54	다트머스대(미)
86	83	조지아공대(미)
87	99	퍼듀대(미)
87	83	세인트앤드루스대(영)
89	108	더블린대(아일랜드)
90	62	애모리대(미)
91	86	노팅엄대(영)
92	120	나고야대(일)
92	106	취리히대(스위스)
94	137	베를린자유대(독)
95	124	국립대만대(대만)
95	99	사우샘프턴대(영)

97	112	도호쿠대(일)
98	93	뮌헨대(독)
99	104	리즈대(영)
100	78	라이스대(미)
134	188	포스텍(한)
151	203	연세대(한)
211	236	고려대(한)

미=미국, 영=영국, 일=일본, 캐=캐나다, 프=프랑스, 독=독일, 호=호주, 싱=싱가포르, 홍콩=홍콩, 한=한국

자료 : QS Intelligence Unit  
www.topuniversities.com

이런 우리의 현실에서 대교협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국제사회는 이미 국가 간 경쟁, 대학 간 경쟁, 인재 간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학들은 지금까지 안주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83%가 대학을 가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체나 일반국민이 대졸자의 능력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분명히 대학교육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학들이 스스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위해 노력을 해왔다는 것보다는 정부나 국회를 비롯한 외부의 문제제기로 인해 수동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대학간 협의체인 대교협이 이전과 다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외부의 기대에 걸맞게 대교협이 스스로 체질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직내부의 역량강화를 통해 한국 대학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대교협이 주요현안에 대해 대학이 나아갈 방향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둘째, 전체 인구대비 대학 수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대학

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수험생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도 신입생 충원율이 낮은 대학에 대해 다양한 방안으로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교협이 일정부분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대학인증평가를 통해 부실한 대학을 업그레йд 시키는 방안을 추진해볼 만 하다. 셋째, 입시나 평가를 비롯한 다양한 대학현안에 대해 대교협이 대학들의 단순 의견수렴기관이 아닌 대학이 필요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기관으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입학사정관제 예산을 배분하는 역할이나 대학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어떻게 하면 입학사정관제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지 노하우를 전달해줄 수 있다. 대학의 발전이 곧 국가발전으로 이어지는 세계적인 추세에서 대교협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대교협이 한국 대학들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고 그래서 한국 대학들의 성과가 국제적인 뉴스로 계속 생산되기를 희망한다. ■■■

## 필 / 자 / 소 / 개

### 안석배

연세대학교 졸업하고, 영국 옥스퍼드대학 로이터 펠로우십 과정 수료하였다. 1995년 1월 조선일보 입사하여 편집부, 사회부, 경영기획실, 사회정책부 근무하였으며, 2004년부터 교육담당 기자로 교육기사를 썼으며 현재 사회정책부 교육팀장을 맡고 있다. 교과부, 서울시교육청, 일선 대학과 학교, 대교협 등을 취재하며, 올해 초 시작된 조선일보-QS '아시아 대학평가'를 총괄하고 있으며, 논문 및 저서로는 옥스퍼드대에서 '학교의 다양성이 학교 교육력 제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영국과 한국 학교제도를 중심으로' 논문이 있다.